<환 영> 살몸^^ 과거에 실패했던 자신에게 지금 어떤 말로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서로 나누어봅시다.

<찬 양> ♬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 540장) / ♬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말 씀> 롬5:1~11

- 1. 지금까지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전개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롬5:1)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정리하며 요약해봅시다.
- 2. 우리는 죄로 인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창3:23~24)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 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롬5:2) 하나님의 나라 왕궁의 부요함을 얼마나 느끼는지 고백해봅시다.
- 3.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궁극적으로 무엇일지 서로 발표해봅시다.
- 4. 소망뿐만 아니라 성도는 또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롬5:3) 환난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됩니까?(5:4) 다윗이 광 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의 고백을 살펴봅시다.(시34:8) 우리의 인생 중에 환난이 소망이 된 경험을 서로 나누어봅시다.
- 5. 환난이 소망이 될 때 또한 누구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까?(롬5:11)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화목하게 하신 내용을 천천 히 내용을 다시 한 번 묵상하며 읽어봅시다.(롬5:6~10)
- 6. 하나님을 소망하고 자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도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롬5:5) 그 분께 붙들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결단하며 발표해봅시다.

<기 도>

- 1. 개인/가정: 전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꾸어지며 닮아가도록 깨진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셔서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경제적으로 곤핍한 개인과 가정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시며, 회복하는 길이 열리도록
- 2. 교회: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담임목사님의 강단사역과 강건함위해, 모든 교역자, 중직자들의 성령충만함위해 제자훈련을 통해 인도자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매일성경의 큐티와 새벽말씀을 통한 같은 성경본문을 통한 나눔으로 교회가 하나되고 온전해지도록 세계관아카데미(9/16~11/25)와 성경암송학교(9/4~10/16)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눈이 열리도록 많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삼일결혼예비학교(10/11~25)를 통해 바른 기독교결혼관이 갖춰지도록
- 3. 나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말씀이 잘 공급되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끌고 다스리도록

<설교요약>

1. 은혜에 들어감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야 한다

롬1~4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정의(正義)를, 롬5~8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져 가는가'를 이야기 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었으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정적 선언인 칭의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영적 DNA가 죄악의 삶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가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은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에 영광과 땅의 평화 때문입니다. 당시 평화는 로마라는 강력한 물리력으로 분열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평화를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것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롬5:2) 은혜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쫓겨났습니다.(창3:23,24) 그 때부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했고, 그 결과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쫓겨났던 우리를 직접 데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왕궁의 부요함을 누리면 됩니다.

2. 성도는 소망과 환난을 자랑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5:2) '즐거워하다'를 달리 번역하면 '자랑하다'입니다. 자랑해야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합니다. 소망을 보고 자랑해야 합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될 목적지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없는 하나님의 과업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걷어내고 이삭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바라게하신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환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5:3)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모든 인생살이를 말합니다. 인류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자원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환난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짓눌러서 부서뜨린다는 의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남겨진다는 의미입니다. 환난을 통해 내게 진짜 남겨 둘 것이 무엇이고, 없어도 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굽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성막, 굴 등 여러군데에서 방황하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 후 그는 시편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시34:8) 우리는 연단을 통해 시선을 일관되게 주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3. 성도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만이 피난처인 것을 고백하여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된다

이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망은 주님만이 소망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5:11) 주님만이 나의 평화요,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간 우리에게 그 왕 앞에서 그 분만 자랑하는 고백이 있다면, 왕궁의 모든 것이 상속자인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완벽하게 걷도록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5:5) 성령께 붙들려 환난이 나를 깎아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